| 현불 논단 |

언론 대선 보도, 괜찮은가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내년 3월 9일 열릴 대선 앞두고
정당 · 후보자 보도 열기 뜨거워
과연 제대로 된 보도 이뤄지는가

떼거리 · 경마 · 갈등 지향보도들
정책 아닌 선거전, 비방만 관심
유권자들 정치 냉소주의 유발해

객관적 · 공정한 선거보도 통해
후보들 공약과 가능성 검증해야

내년 3월 9일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 열기가 뜨겁다. 시민이 직접적 참여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전통적으로 정당은 공직 후보자를 발굴해서 부각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공문제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는 데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언론의 영향력이 이런 정당의 역할을 대신할 만큼 커짐으로써 언론은 정당과 기타 정치적 행위자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현대사회의 선거 과정에서 이제 언론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의제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크게 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시민에게 그들의 대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시민이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안목을 갖추는 학습의 장이 된다. 선거의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언론은 크게 공명선거를 감시하는 역할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시민 학습을 위해 중요한 선거이슈에 관해 활발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과연 언론이 선거보도에서의 제시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언론이 개선해야할 선거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떼거리 저널리즘이다. 이는 각 후보가 만들어주는 뉴스 이벤트에 무리지어 쫓아다님으로써 일률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전하는 현상이다. 이런 취재 방식은 결과적으로 언론사마다 비슷한 기사를 생산한다. 언론은 정치인이 만들어주는 뉴스 현장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각 당의 정책노선과 구체적 실천 가능성을 비교 평가하여 정책문제를 선거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각 당의 대선 공약을 엄밀히 비교하여 가능성과 문제점 및 극복 방안 등에 관해 사실적이며 지적인 분석을 추구해야 한다. 유권자가 언론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보고 나면 유권자 스스로가 각 당 공약의 우열성에 관해 하나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사실에 바탕을 둔 수준 높은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경마 저널리즘이다. 선거보도에서 경마 저널리즘이란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 이슈와 같은 유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본질적 정보보다는 후보의 득표 전략, 상대 후보에 대한 공략 전술, 득표 전망, 현재의 우열상 등 게임적 요소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마치 경마 경기를 구경하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보도를 일컫는다. 선두주자, 다크호스와 같은 경마 용어로 도배된 흥미위주의 경마적 접근은 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케 하여 유권자들의 주권의식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냉소주의를 부채질하여 결국은 선거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갈등 지향 저널리즘이다. 이는 언론이 후보자 간의 불필요한 싸움을 붙이는 보도양식을 말한다. 언론이 문제를 만들어 싸움을 유도하는 보도행태로서 보도의 대상은 정책문제라기보다는 주로 상대 후보의 자질, 이념적 색깔과 관계되는 사안들이다. 언론의 싸움 붙이기 보도양식은 각 후보자들로 하여금 언론 노출을 위한 상호 비방 성명전 같은 '선수치기 경쟁'을 유발시켜 선거분위기를 불필요하게 과열시키고 혼탁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보이용의 수단과 매체가 다양해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로 인해 정보의 획득과 소통은 더욱 편협해져서 확증편향도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언론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통해 후보자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공약의 의미와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일은 더 중요해졌다. 언론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민주주의의 꽃을 제대로 피울 수 있도록 선거과정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社 說

상월결사 정신, 전방위 확산하자

상월결사 삼보순례가 10월 18일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회향했다. 423km를 64만보 넘게 걸은 순례단은 국난 극복과 불교 중흥을 외쳤다.

우리는 항상 변화를 외친다. 하지만 정작 한국불교의 변화를 위해서 깃발을 들고 나서는 이는 적다. 찬서리가 내리고 손발이 시려 따뜻한 곳이 그리움에도 끊임없이 정진한 순례단에서 불교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변화의 깃발을 들고 있어서다.

삼보순례는 100여 순례대중이 함께했다. 지원단과 일일동참자까지 하면 최대 500명은 함께 순례했다. 연인원 수천 명을 넘는 불자들이 하나의 목표로 정진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순례단의 순례는 현장 뿐만 아니라 각종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불교중흥의 씨앗이 이제 발아할 일 만이 남았다.

순례과정에서는 그러한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순례단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박수와 격려로 맞이한 지역불자들, 마을회관에서는 빗길을 걷는다고 커피를 타와 내주던 주민들, 모두 중흥의 원동력이다.

상월결사는 찾아가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친절한 불교로 우리 삶 속에 생동하는 불교로 나아가자는 일대 선언이다.

그렇기에 순례는 과정일 뿐이다. 순례단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번 들어올려진 만행결사의 기치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펼쳐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계 과제는 산적해 있다. 순례 이후 그 메시지를 받아 불교 혁신의 장을 펼쳐야 한다. 종단부터 일선 사찰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전법포교에 나서고, 불교가 생동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정청래의 왜곡된 인식 규탄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매도하고 사찰을 '봉이김선달'로 폄훼한 데 대한 불교계 공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제 공분을 넘어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은 차치하고, 국정감사에서 이어진 발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한 데 따른 오해와 편견, 문화재를 향한 왜곡된 인식이 재차 드러났기 때문이다.

"영화관람료는 영화를 본 사람한테만 받아야 겠지요? 극장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주변에 있다고 받으면 안 되겠지요?" 불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문제의 발언이다.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이 발언 속에 얼마나 큰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사찰은 국가땅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이 아니다. 길을 지나가는 명목으로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찰의 소유재산에 따른 비용이며, 이 가운데는 명승지나 문화재보존구역 등이 포함됐다.

한발 더 나아가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받게 된 경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왔던 사찰들이 국립공원 내 부지로 사실상 강제 편입되면서 빚어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당지도부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항의방문을 한 조계종 관계자들에게 대신 사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불교계는 재산권을 침해당했다. 이미 오랜 세월 자발적으로 행해 온 전통문화 지킴이로서의 역할조차 강제화되면서 각종 규제에 막혀 고통받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역사와 법적 근거를 다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행운은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하고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흉의 징조나 꿈, 관상, 별자리 등에 매달려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21세기가 되어서도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 작은 것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주팔자, 관상, 별자리 등 여러가지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 자신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쁜 징조로 인해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 결코 나쁜 징조가 가져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행복한 곳도 아니요 괴로운 곳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행복해질수도 있고 불행해 질수도 있습니다. 행위에 의해 예쁜 사람도 미운 짓 하면 미워지고, 못생긴 사람도 좋은 일 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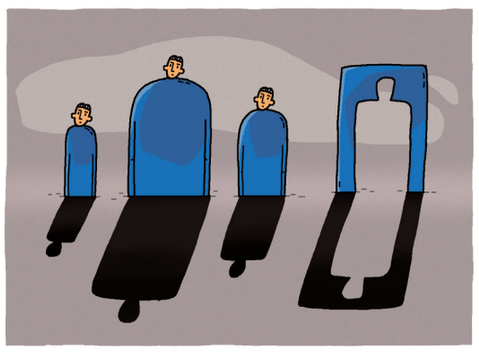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행위와 마음자세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이 보기에는 행운인 것 같지만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강인한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 앞에는 모든 것이 무력화되고 맙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하늘이나 신이 어떻게 해 줄 수 없습니다.

좋은 습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행동의 씨를 뿌리는 것도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운명과 행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명을 움직일 수 있다면 행운 또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행운은 내 행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고, 좋은 습관을 몸에 들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행운도 따라 움직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5~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BTN 붓다회
BUDDHACLUB
BTN 붓다회 방송포교 25년
- 코로나19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다 -
만약,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나투신다면 어떻게 전법하실까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을 전하였지만,
오늘날이라면 방송국 카메라앞에서 법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송포교 매체가 BTN불교TV입니다
BTN 붓다회는 방송포교 원력을 후원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 1855-0108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